



모바일콘텐츠테스트베드 본격 가동

KIPA 지난달 13일 개통식 ... 유럽수출용 제품 현지화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지난달 13일 유럽형 국제표준 상용 무선통신(GSM·GPRS) 시험망을 갖춘 '모바일테스트베드'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는 최재유 정통통신부 지식정보산업과장,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 고시연 한국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노세용 LG텔레콤 상무, 박성찬 다날 사장, 최종엽 신지소프트 사장 등 관련인사 7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글 신승철 기자 / 사진이혜성 기자



유럽 모바일 디지털콘텐츠 시장은 지난해 152억3,800만달러에 달할 정도의 거대 시장. 하지만 유럽은 국내 표준인 CDMA가 아닌 GSM방식이어서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체들의 시장진출은 지지부진하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유럽시장 수출을 위해 현지에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 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KIPA의 GSM/GPRS 시험기지국 개통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KIPA는 약 15억원 예산을 투입, 70평 규모로 마련한 '모바일테스트베드'의 시범서비스를 지난 3월 8일부터 시작한데 이어 지난달 13일 정식 개통식을 가졌다. 수출형 모바일콘텐츠·솔루션·단말기 등을 수출국의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통부·문광부 협력 아래 시너지 낸다”

이날 개통식에서 고현진 KIPA 원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유무선 통신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이러한 시험망을 개통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적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 언론에서 ‘문광부와 정통부가 모바일콘텐츠테스트베

드 사업을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의식한 듯 개통식에 참석한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융합의 시대에 부처간 일부 사업부문이 겹치는 부문은 있을 수 있으며 양 기관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테스트베드는 단말기와 서버간의 프로토콜 테스트를 통한 모바일콘텐츠 다운로드 테스트만이 가능하지만 KIPA의 테스트베드는 솔루션, 단말기, 장비업체 등까지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타 기관의 테스트베드를 이용한다고 해도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을 분명히 했다.

최재유 정통부 지식정보산업과장은 “시장조사기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오는 2010년까지 세계 20%, 국내는 40%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는 물론 3만달러 시대를 향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대역 통합사업과 더불어 DMB, 휴대인터넷 등 신규서비스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며, 온라인게임 글로벌테스트베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택민 KIPA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장은 올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통해 6만명의 고용(전년 4만8,000명)을 창출하고 4억 달러의 수출(전년 2억8,000만달러)을 일구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모바일콘텐츠테스트베드 개통경과를 설명했다.

KIPA 건물 6층에 위치한 모바일콘텐츠테스트베드는 상용 GSM/GPRS 이동통신망 환경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14종의 장비를 갖췄으며, 현재 테스트할 수 있는 서비스는 벨소리다운로드·네트워크게임·모바일쇼핑·모바일광고·텔레매틱스·모바일결제·스트리밍 등 크게 40여가지다. 사무공간, 회의실, 프린터 및 인터넷환경이 제공되며, 다양한 모델의 단말기를 한 업체당 최대 5개까지 제공한다. 또한 WAP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해 시험할 수 있는 WAP 서버도 제공한다. 